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 대검찰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 보도자료

2023. 1. 25.(수)

자료문의 : 인권정책관  
전화번호 : 02-3480-2963  
주책임자 : 인권기획담당관

### 제 목

##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 대검찰청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정성을 다한 수사 및 인권보호 관련 제도개선 등 다음 우수사례 4건을 2022년 4분기 인권보호 우수 사례로 선정하였음 (※ 상세내용 별첨 참조)

① CCTV 상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14세 중학생을 범인으로 특정하여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서, 범행현장 탐문수사 등 보완수사로 CCTV에 찍힌 범인은 피의자가 아닌 사실을 규명하고, 다른 진범을 밝혀냄으로써 성폭력 사범으로 오인된 14세 중학생의 인권을 보호한 사례 [부천시청]

② (1)경찰 송치 구속 사건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검사가 직접 면담하는 양식의 질문사항 세분화 등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2)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활동을 하는 '세움' 경상권센터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의뢰, (3)인권친화적 검찰 업무수행을 위한 인권지문위원회 활성화 등 인권보호관으로서 적극적 인권보호 업무 수행 사례 [부산지검]

③ 흥기로 동거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의 자해리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을 면밀히 살펴, 범행도구인 칼에 대한 DNA 감정결과 피해자의 DNA만 검출된 사실 등을 밝혀 구속취소하고 혐의 없음 처분함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사례 [인천지검]

④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서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피의자 주장의 신빙성을 세밀히 살펴 사경이 피의자를 1회 총 6시간 이상 연속하여 보호유치실에 수용하여 피의자 유치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함으로써 사경 유치 업무의 인권친화성을 높인 사례 [서울중앙지검]

[첨부: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내역]

순 번	소 속 부 장 주임검사	우수사례
	1	

순 번	소 속	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2	부산지검 형사제1부	<p>[인권보호] ①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 양식 개선, ②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조치, ③ 인권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인권보호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인권보호 업무 수행한 사례</p> <p><b>개선 내용</b></p> <p>① (면담결과서) 구속 송치 피의자 면담결과서에 인권 침해 관련 질문사항 세분화, 상세 답변이 가능하도록 기재 방식 변경, 조치 필요사항 등에 대한 면담자(인권보호관) 의견란 추가 등 피의자 면담결과서가 실질적으로 수사절차에 반영, 활용 되도록 업무 개선함</p> <p>②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22. 11. 수용자 자녀 지원 목적으로 발족한 '세움' 경상권센터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속 송치일 피의자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의뢰하여 수용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움</p> <p>※ '21. 4.부터 '22. 10.까지 수용자 자녀 34명 지원 의뢰</p> <p>③ (인권자문위원회) '22. 9. 인권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간담회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실무에 부합하도록 운영규정 개정하는 등 인권 친화적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함</p> <p><b>선정 이유</b></p> <p>○ ① 구속 송치 당일 실질적인 피의자 면담 및 수사절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업무 개선, ② 수용자 자녀의 생활 안정을 도와 수용자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복귀 촉진에 기여, ③ 각계 인사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검찰의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위상 및 기능 강화 등 적극적으로 인권보호 업무 수행한 사례</p>
	인권보호관 이영규(32)	

순 번	소 속	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3	인천지검 여성이동범죄 조사부	<p>[피의자 인권보호] 구속 송치 사건 초기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 증거 확보 및 법의학 자문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한 후 구속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한 사례</p> <p><b>사안 개요</b></p> <p>○ '22. 10.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손목을 커터칼로 그어 피해자에게 요치 28일의 좌측 수근부 심부열상, 척골동맥 및 수근 굴곡건 파열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됨</p> <p><b>검찰 조치</b></p> <p>○ 피의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직접 112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119신고까지 하였다며, 범행 현장에서 부터 구속 송치 후 검찰 조사 시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함</p> <p>○ ① 112·119신고 녹음파일, 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 추가증거 확보, ② 피의자 휴대전화기 포렌식 분석, ③ 구치소에 영치된 피의자의 의복 검증, ④ 법의학 자문 의뢰, ⑤ 피의자·피해자의 통화내역 확보 및 분석, ⑥ 피해자 DNA만 검출된 범행도구 감정결과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다수의 증거와 피해자의 자해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구속취소 및 혐의없음 처분함</p> <p><b>선정 이유</b></p> <p>○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 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p>
	구미옥(34)	
	오승환(41)	

순 번	소 속	우수사례
	부 장	
	주임검사	
4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	<p>[인권보호, 사법통제] 구속 피의자 수사 중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시정요구 및 조치하여 경찰 유치 업무의 인권 친화성을 높인 사례</p> <p><b>사안 개요</b></p> <p>○ ① '22. 8. 12. 02:50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 폭행, ② 같은 날 05:09경 유치장에서 경찰공무원 폭행, ③ 같은 날 11:58경 보호유치실에서 경찰공무원 폭행하여 <b>공무집행방해 혐의</b>로 구속 송치됨</p> <p><b>검찰 조치</b></p> <p>○ 구속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경찰로부터 피의자가 주장하는 시간대의 유치장 근무일지, CCTV 영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송치 기록에 기재된 피의자의 보호유치실 입감시각(08:20경)이 실제 입감시각(05:17경)과 다른 것을 확인함</p> <p>○ 경찰에 피의자 유치기간 전체의 유치장 근무일지, CCTV 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피의자를 6시간 이상 보호유치실에 수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 사실을 확인함</p> <p>※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22조의2① 단서에 의하면, 1회에 6시간 범위 내에서만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음</p> <p>○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경찰에서 관련자들 경위서 징구, 직무관련자 대상으로 재발방지 위한 인권교육 실시하는 등 시정조치함</p> <p><b>선정 이유</b></p> <p>○ 구속 피의자 주장을 경청한 후 면밀한 기록 검토 및 추가자료 확보를 통해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위반 사항을 밝혀내고, 직무관련자 인권교육 실시 등 시정조치를 통해 경찰 유치 업무의 인권친화성을 높인 사례</p>
	권유식(33)	
	이주현(37)	